

심판의 물, 구원의 방주 (창 7:6-24)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본문 읽기 창세기 7:6-24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 갈리는 마지막 때를 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1. 물에 잠긴 옛 세상: 구원의 문이 닫히다

첫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홍수가 시작되던 때를 말하면서 노아의 나이를 언급합니다(6절). 노아로부터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땅의 생물들이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갑니다(7-9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집니다. 옛 세상을 쓸어버리는 물입니다.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은 창조가 역전되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의 물속으로 회귀합니다. 곧 새로운 세상이 그 물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이 각기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14-15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16절). 닫힌 방주 문 사이로 의인과 악인, 구원과 심판,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이 갈립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고후 6:2).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했지만, 앞으로 세상은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벧후 3:6-9).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마 24:42).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종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셨습니까? 이 물음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 ‘방주’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홍수가 사십 일 동안 온 세상을 덮습니다. 사십 일은 완전한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입니다. 심판의 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17-19절). 세상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20절), 창조 때 언급된 땅의 움직이는 생물, 새, 가축, 들짐승, 기는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21-22절). 홍수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립니다(23절).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비가 40일간 지속되고 홍수가 150일이나 창궐하면서, 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덮은 물은 죄에 대한 심판의 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동시에 이 물은 세상을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이제 곧 물로 씻겨 정화된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물은 새 창조를 준비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혼돈과 공허의 물 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옛 세상을 물로 덮으시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옛 세상의 죽음을 경험하고 옛 세상과 결별합니다. 모세가 나일강 물에서 건져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물을 건넌으로써 옛 땅 이집트와 완전히 결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요 3:5). 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예표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 죄를 따르는 옛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세례는 구원의 방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함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의와 거룩을 입은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얼마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옛 세상과 결별하고,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교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곧 심판받을 옛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와 자녀 세대가 옛 세상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건짐 받은 ‘방주 안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 안에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홍수가 시작되기 전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7-9절) 홍수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11-12절)

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 노아와 생물들을 방주에 다 들여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16절)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참조. 마 24:42)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 홍수가 계속되자 옛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17-2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참조. 요 3:5)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자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 노아가 방주 안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22-24절)

우리가 세례를 통해 경험하는 것과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함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 주기도문